

# 女프로배구 빛고을서 '미니 리그' 치른다

### 도로공사·IBK·현대건설·인삼공사 4개팀 참가 내달 6-8일 빛고을체육관서 총 6경기 시범경기 KOVO컵 대비 전력 점검...유소년 배구 교실도

최고 인기 스포츠로 떠오른 여자프로배구가 광주에서 '시범경기(가칭 미니 리그)'를 갖는다.

19일 광주시배구협회에 따르면 김천 한국도로공사와 화성 IBK기업은행, 수원 현대건설, 대전 KGC인삼공사 등 여자프로배구 4개 팀 실무자들은 이날 광주에서 전담수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배구협회 임원진들과 협의를 통해 다음달 6-8일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미니 리그'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미니 리그는 광주시배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경기일정은 지난달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수원 한국전력과 안

산 OK저축은행, 천안 현대캐피탈, 대전 삼성화재의 '서머리그'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2경기씩, 3일간 총 6경기를 치른다. 대진표는 조만간 각 구단 대표들이 만나 정할 계획이다.

각 구단들은 경기에 앞서 오전에는 2시간씩 광주지역 학교배구선수들과 유소년 배구클럽 선수들을 대상으로 배구 배구교실도 진행한다.

'미니 리그'는 여자 프로배구팀들의 일본 전지훈련을 대신해 추진됐다. 여자배구 구단들은 당초 9월 초에 일본 전지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자 사

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 전지훈련을 취소하는 대신 국내 전지훈련으로 방향을 바꿨다.

여자팀 중 가장 먼저 일본 전지훈련을 취소했던 KGC인삼공사가 나서 다음달 21-28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배구연맹(KOVO)컵을 대비한 시범경기를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팀들이 동의하면서 빛고을 '미니 리그'가 추진됐다.

구단들의 제안을 받은 광주시와 광주배구협회는 프로배구 불모지인 광주에 배구 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실내 프로스포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니리그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 미니리그를 확정된 4개 팀은 추진과정에서 흥국생명(광주)과 GS칼텍스(광주)가 포함된 국내 여자프로배구 6개팀 전체 참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체육관 대관 일정상 당초 계획대로 4개 팀만 참가하

는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이번 '미니 리그'를 통해 각 구단들은 이달 초 선수단에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KOVO컵에 대비한 조직력 강화와 함께 실전 경기감각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한전프로배구단 유지 운동에 나선던 광주시민과 지역배구인들 역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여자프로배구를 직접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담수 광주시배구협회장은 "한국전력 배구단 광주연고 이전 실패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최고 인기 스포츠인 여자프로배구를 직접 볼 수 있게 돼 배구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유소년들을 위한 배구교실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배구로 꿈을 키워가고 있는 꿈나무들에게도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임성재 경기 모습. /AP=연합뉴스

##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 24위 임성재, 투어 챔피언십 진출 PGA 신인상 사실상 '예약'

임성재(21)가 한국 국적 선수로는 3년 만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임성재는 19일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의 메디나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의 성적을 낸 임성재는 출전 선수 69명 가운데 공동 1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임성재는 시즌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 24위에 올라 상위 30명만 출전하는 시즌 최종 투어 챔피언십에 나가기 됐다.

한국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나간 최근 사례는 2016년 김시우(24)였다.

역대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진출한 한국 선수는 최경주(2007년·2008년·2010년·2011년), 양용은(2009년·2011년), 배상준(2015년), 김시우(2016년)에 이어 임성재가 5번째다.

한국 선수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고 성적은 2007년 최경주의 5위다.

임성재는 또 2018-2019시즌 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 한국 국적의 선수로는 최초로 PGA 투어 신인상 수상도 사실상 '예약'했다.

/연합뉴스

## "끝내줬다" 템파베이 최지만 '최고의 날'...9회말 끝내기 역전 적시타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가운데)이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경기 9회에 2타점 역전 끝내기 안타를 터뜨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최지만은 팀이 3대4로 뒤진 9회말 1사 만루에서 상대 팀 조 히메네스의 시속 140km 체인업임을 정확히 걷어내 경기를 끝냈다. 템파베이는 전날 연장 13회 혈투 끝에 나온 끝내기 안타로 디트로이트에 1대0 승리를 거둔 데 이어 5년 만에 2경기 연속 끝내기 안타로 승리했다. /USA투데이스포츠=연합뉴스

## 호남대,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 준우승

### 박희성 '공격상'·조정현 '리베로상' 수상

호남대 배구부가 '2019 현대캐피탈 배 전국대학배구 해남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대학 2부에 소속된 호남대는 최근 해남군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첫 상대인 목포대에 졌지만, 경남과학기술대에 3대1(20-25 26-24 25-20 25-21), 우석대에 3대2(30-28 21-25 19-25 27-25 15-12) 승리를 거두 2승1패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석대와의 경기 1세트에서는 박희성과 정현태의 파워풀한 스파이크와 타점 높은 공격이 위기 때마다 위력을 발휘하며 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와 3세트에서는 경기 중 주축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세트를 내줬다.

전열을 가다듬은 호남대는 4세트에서는 조커 김영민의 한 템포 빠른 스파이크와 이정현, 조우진의 고비 마다 타

진 가로막기가 위력을 발휘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마지막 5세트에서는 탄탄한 수비에 이정현, 김현태의 속공이 빛을 발했고, 우석대 주포 하도영의 공격을 가로막기로 봉쇄하며 치열한 승부를 매조지었다.

이로써 호남대는 작년과 올해 모두 우석대와의 경기에서 세트 끝에 승리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호남대 박희성과 조정현은 이번 대회 공격상과 리베로상을 각각 수상했다. /박희중 기자

# 광주체고 안세영 BWF 투어 시즌 3승

## 2019 아키타 마스터스 여자 단식 우승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 차세대 에이스 안세영(광주체고 2)이 시즌 3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30위 안세영은 지난 18일 일본 아키타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연맹(BWF) 투어 슈퍼 100 대회인 2019 아키타 마스터스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261위 스즈키 하루코(일본)를 세트 스코어 2대1(21-10 17-21 21-14)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안세영은 5월 뉴질랜드 오픈(BWF 300)과 지난달 캐나다 오픈(BWF 100)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인도 하이데라바드 오픈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랭킹 30위 이번 대회 3번 시드를 받은 안세영은 16강에서 일본 나츠키 오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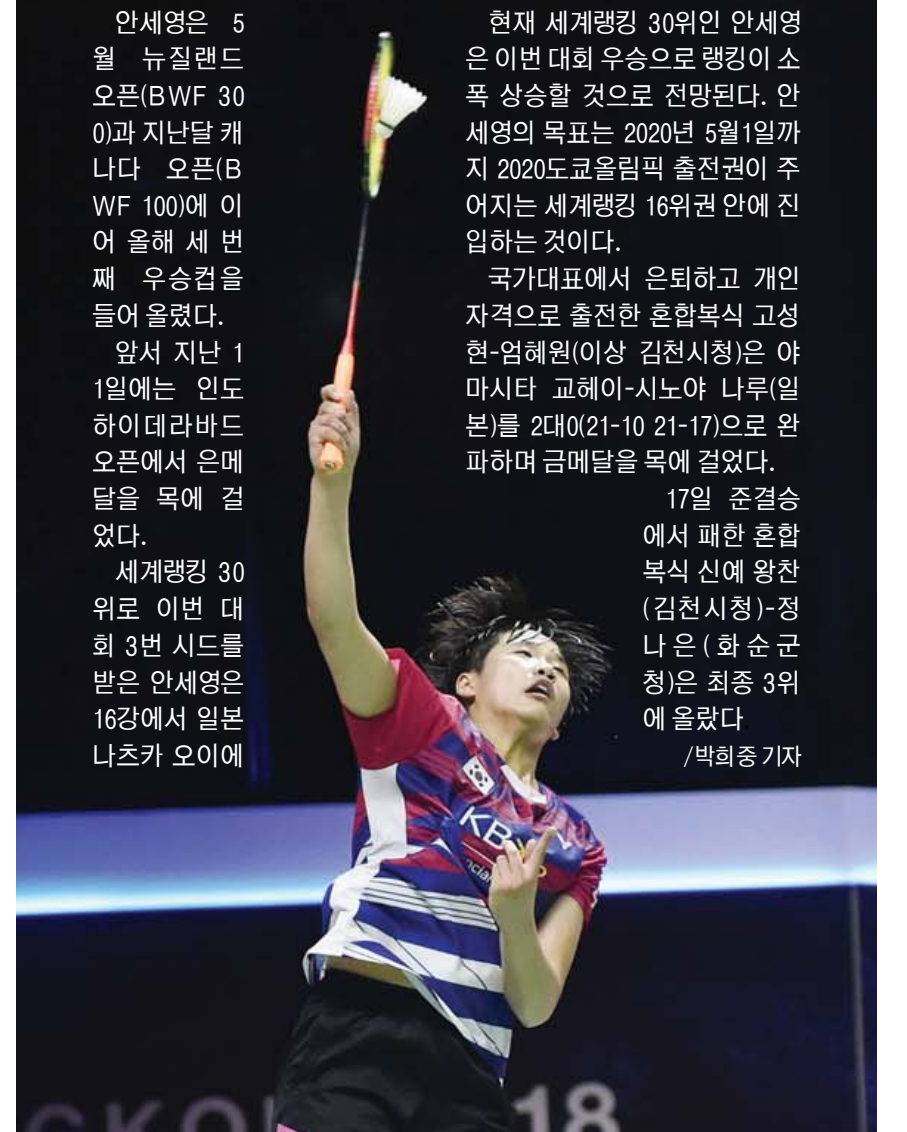
를 2대1(14-21 21-11 21-5)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8강에서는 세계랭킹 37위 루셀리 하르타완(인도네시아)을 2대0(21-17 21-4)으로, 준결승전에서 피타야온 차이완(태국)을 2대1(15-21 21-5 21-11)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안세영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2020 도쿄올림픽 출전 희망을 키웠다.

현재 세계랭킹 30위인 안세영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랭킹이 스포츠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세영의 목표는 2020년 5월1일까지 2020도쿄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지는 세계랭킹 16위권 안에 진입하는 것이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혼합복식 고성현-엄혜원(이상 김천시청)은 야마시타 고키이-시노야 나루(일본)를 2대0(21-10 21-17)으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7일 준결승에서 패한 혼합복식 신예 양찬(김천시청)-정나은(화순군청)은 최종 3위에 올랐다. /박희중 기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워터슬라이드장이 운영 한달 동안 2만2천여명의 시민들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끄는 빛고을 도심 속 물놀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 ACC내 워터슬라이드 폐장

### 도심 물놀이 명소...한달 간 2만2천여명 다녀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붐 조성 등 홍보 특효

도심 속 여름 물놀이 명소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워터슬라이드장이 폐장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9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장한 워터슬라이드장이 폐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에 개장해 이달 11일까지 운영한 워터슬라이드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학생들, 가족단위 시민들까지 총 2만2천여 명(하루 평균 730여 명)의 이용객이 다녀갈 만큼 인기를 끌었다.

또 세계수영대회 기간인 만큼 광주를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용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광주시와

문화전당, 수영연맹 등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시민들의 안전에 힘을 쏟았고, 탈의실, 야외샤워장, 물품보관함 등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주 슬라이드인 워터슬라이드(80m, 2라인) 외에 미니슬라이드(5m, 2식)와 에어풀장(5m, 4식)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대시설도 보완해 주 이용객인 아이들과 부모들의 호평을 받았다.

오순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세계수영대회 기간 중 워터슬라이드를 개장해 지난해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다녀갔다"며 "도심 속 물놀이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설 개선과 안전에 힘써 내년에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전남 육상 '미래 밝다'

전남 육상이 제48회 추계 전국중·고 육상경기대회에서 선전을 펼쳤다.

전남 육상은 최근 충북 보은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12개를 포함해 총 2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남체육중·고를 제외한 도내 일반 학교 육상선수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해 주목을 받았다.

목포 하당중은 남중부 400계주에

서 박효선, 서정문, 조상현, 이정현이 팀을 이뤄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고, 조상현은 5종경기에서도 은메달을 보냈다.

순천 금당중 장예찬도 남중부 멀리뛰기에서 6m52cm를 뛰어 채원준(문산 수억중)에 아쉽게 1cm차 뒤지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 110m허들경기에 출전한 목포 문태고 명민건도 금빛 질주를 보여줬다.

명민건은 16초31의 기록으로 양민

## 추계전국 중고대회 금 12개 등 메달 29개 수확 문태고·하당중·금당중 등 일반 학교 두각 성과

혁(서울체고)을 여유있게 따돌리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각 중별 1학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1학년부에서 남고 1학년부에 출전한 강진고 허정인은 100m에 출전해 11초12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 육상의 자존심' 전남체육중·고는 금메달 11개를 포함 24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특히 여중부 이은빈은 1학년임에도 3학년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100

m과 400m계주에서 2관왕, 1,600m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 육상을 이끌어갈 차세대 주역들이 좋은 결과를 내줘 전남 육상의 밝은 미래를 보여줬다"며 "특히 전남체육중·고에만 치우치지 않고 일반 학교에서도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